

경남공립특수학교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는 지체부자유아와 정서장애아의 사회적응 훈련 및 특수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교육시설확충과 여건 조성을 위한 교육시설로서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가 함께 설치될 경남공립특수학교 현상공모를 실시하였다.

경남 창원시 명서동에 건립될 이번 특수학교 현상공모에는 총 7개 사무소가 작품을 응모하여 그중 예진종합건축(안)이 당선작

으로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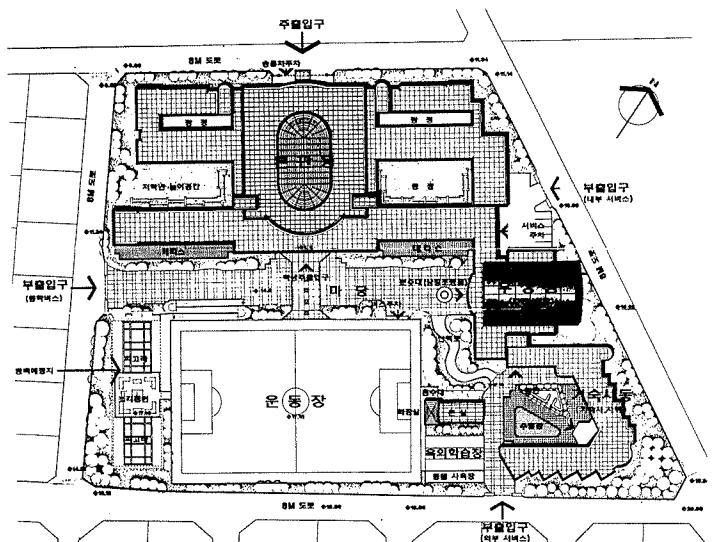
본 당선작은 경사대지를 건축물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동선의 원활한 처리와 토목공사량을 극소화시켜 공사비를 절감시켰고, 특수학교의 특성을 잘 반영시켰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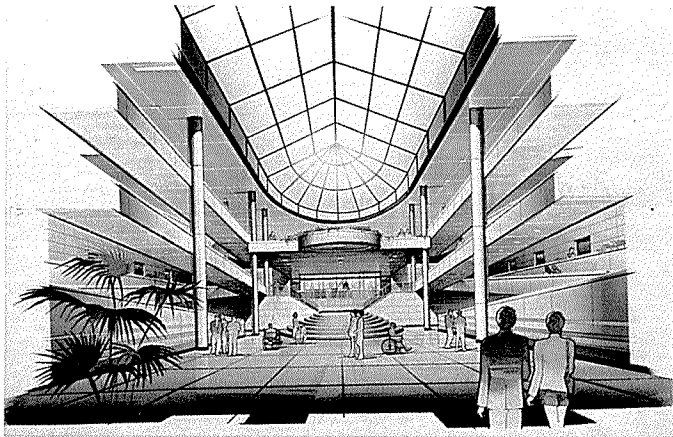
조감도

당선작
예진종합건축(안)
 (황석규+김정관+신정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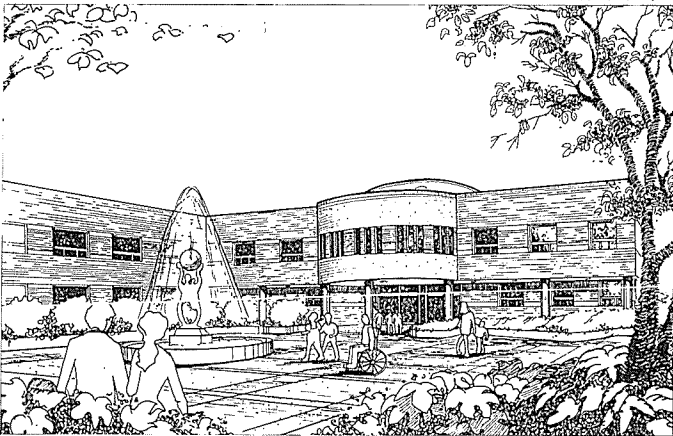
대지위치 / 경남 창원시 명서동 32
 번지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 18,200㎡
 건축면적 / 6,431.4㎡
 연면적 / 12,734.9㎡
 건폐율 / 33.2%
 용적률 / 58.9%
 구조 / 철근콘크리트+철골조
 규모 / 본관동-지하 1층, 지상 2층
 후생동-지상 2층
 기숙사동-지상 2층
 주차대 / 37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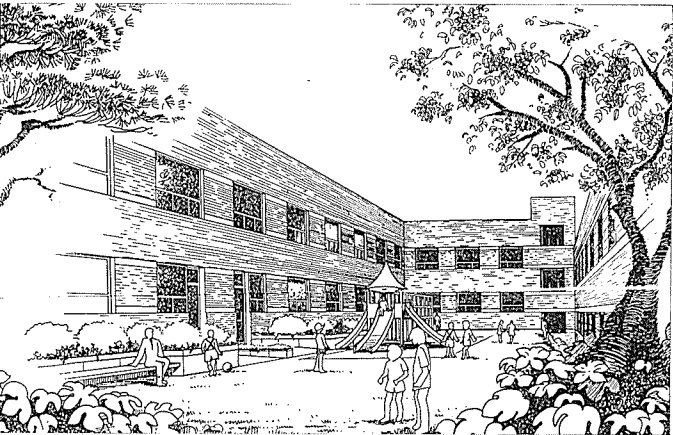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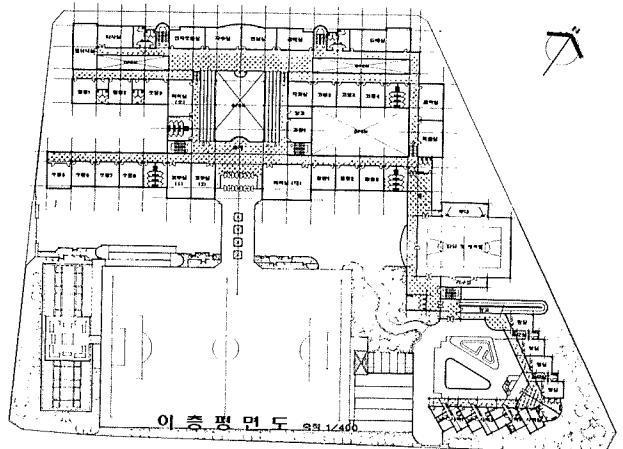
중앙 홀 부분 실내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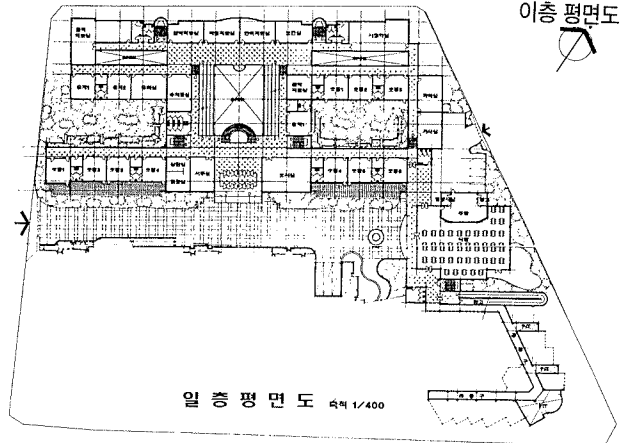
마당 부분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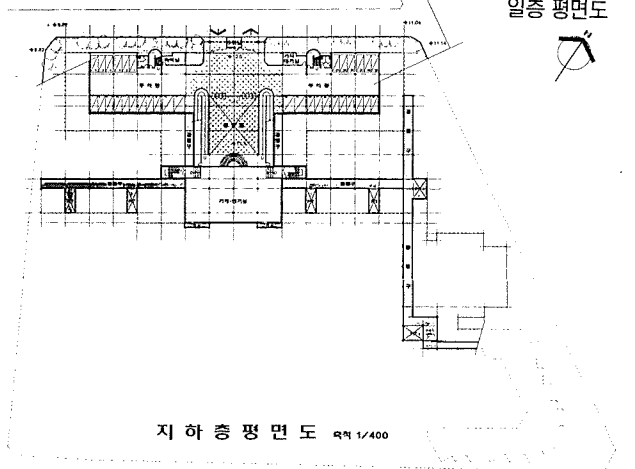
중정부분 투시도



이층 평면도



일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계획의 주안점

매개공간

지체부자유와 정서장애, 저학년(유치부, 초등부)과 고학년(중등부, 고등부), 건축물과 외부공간, 주간 사용공간(본관동)과 야간 사용공간(기숙사동), 동적공간(본관동, 운동장)과 정적공간(기숙사, 정원) 등의 상반된 공간간을 매개공간(중앙홀, 마당, 후생동, 옥외학습지) 설정으로 처리하여 명확한 분리 및 자연스러운 연결을 도모하였다.

진입과 전면도로

대지의 4면이 모두 8m도로에 접해있어 도로의 특성에 따른 진입개념을 설정하였다.

진입도로와 연결된 북측도로는 본관동과 직접 출입될 수 있는 주출입구로 배려되고 서측도로는 학생 통학버스 출입구, 동측도로는 건물 부출입구로써 서비스 동선을 수용한다.

남측도로는 운동장으로 연결되는 외부 서비스 동선처리의 기능을 가진다.

동선처리와 공간개념

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교인 만큼 동선의 유기적인 처리는 가

장 중요한 계획요소이다.

평면동선은 1층에 저학년 공간을 두어 중정과 테라스로 직접 연결시켜 내·외부 공간의 일체화를 피하고, 2층에 고학년 교실을 두어 운동장과 같은 레벨로 처리 연결다리를 통해 직접 연결시킨다.

수직동선은 내·외부 모두 램프를 통해 원활하게 이동될 수 있다.

경사대지의 극복

전체적으로 지형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는 원칙아래 절토와 성토의 비율을 맞추어 반출토량이 없도록 하며, 운동장의 레벨

을 본관동 2층 바닥높이로 맞추어 연결다리를 통해 이어지므로써 운동장 활용도를 극대화 시켰다.

극적 공간의 연출

중앙홀의 설치는 정서장애와 지체부자유 상반된 기능을 완충시켜주는 역할과 함께 단조로운 분위기로 되기쉬운 교육시설의 공간에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천장을 통해 쏟아지는 하늘빛은 풍부한 내부공간의 분위기를 생동감있게 하므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신감을 돋궂줄 수 있을 것이다.